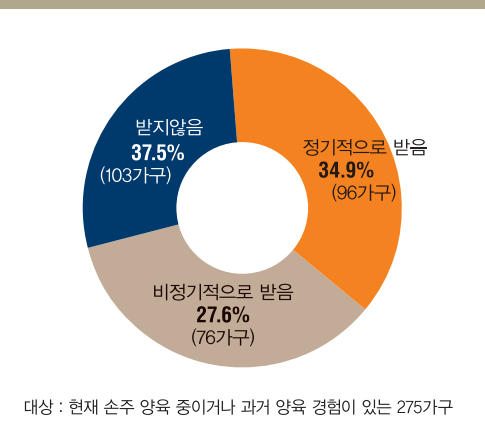


희망하는 응답자는 28.2%에 그쳤다. 참고로 취미활동은 83.4%, 소득창출 활동은 73.8%가 희망했다. 이처럼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도표3-4〉 황혼육아에 대한 양육수고비 수령 실태 (%)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 받는 가구는 34.9%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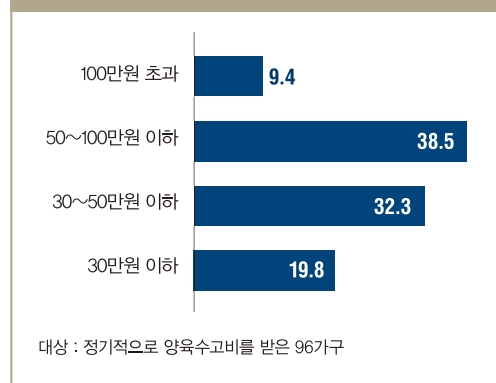
황혼육아의 힘겨움에 비해 조부모가 받는 경제적 보상은 적다. 양육수고비(양육에 들어가는 실비 외 순수한 수고비)를 받지 않는 집도 많고, 받더라도 금액이 적다. 조사 결과, 양육에 대한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에 불과했다. 비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27.6%를 합해도 양육수고비를 받는 가구가 총 62.5%에 그

친다. 나머지 37.5%는 양육수고비를 따로 받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를 받은 96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이었다. 외부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적어도 150~200만 원이 드는데, 평균 수령액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50~100만원 이하(38.5%) > 30~50만원 이하(32.3%) > 30만원 이하(19.8%) > 100만원 초과(9.4%)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부모가 양육을 보조하는 형태에 따라 노동강도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52.1%)이 월 50만원 이하의 ‘용돈’ 수준 양육수고비를 받는다. 많은 수의 조부모들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060 세대 대부분은 양육수고비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양육수고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체 5060 응답자 5명 중 4명(81.9%)이 찬성했다. 혹시 황혼육아를 직접 했던 5060의 의견

〈도표3-5〉 황혼육아 양육수고비 금액 (%)



은 다들까 싶어 경험자만 따로 떼어내 따져봤다. 경험자 중 75.6%가 찬성했다. 실제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를 받고 있는 집(34.9%)의 두 배가 넘는다. 즉 마음으로는 양육수고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는 이야기다. 자녀에 대한 희생도 모자라,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희생하고 있는 것이 5060 세대의 현실이다. 한 응답자는 양육수고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말 못할 ‘내 희생’으로 마음 속에 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돈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해줬다’, ‘고맙다’ 그런 계 눈에 띄지 않게 마음 속으로만 쌓여요. 결국 못받은 내 희생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얼마가 되든, 서로 합의해서 딱 정리하는 게 기대나 실망, 나중의 서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훨씬 더 해결이 쉬울 것 같아요”(황OO, 55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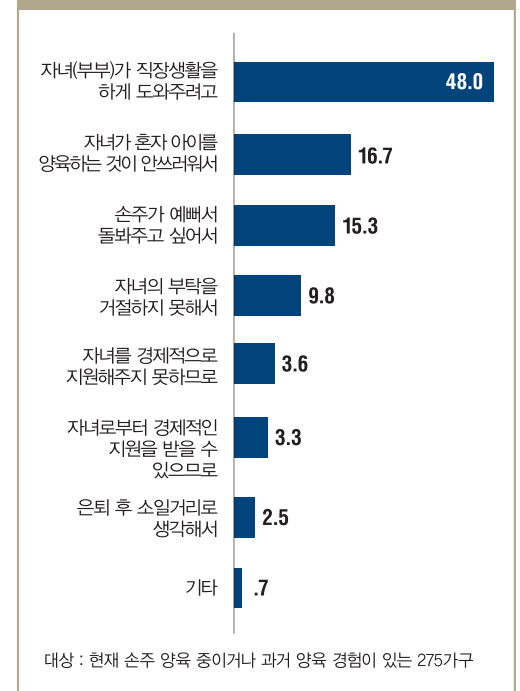
3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

황혼육아 하는 이유는 ‘자녀부부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한 건강식품 CF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 복직을 앞둔 워킹맘이 친정에 다녀가는 모습을 그렸다. 오랜만의 복직도 겁나지만 엄마로서 아직 어린 딸(3대)에게 소홀해질까 봐 걱정된다는 딸(2대)에게 친정엄마는 “넌 네 딸 걱정, 난 내 딸 걱정”이라며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전해준다. 따뜻한 모성이 할머니-엄마, 엄마-딸에게로 되풀이 되는 장면이다.

황혼육아도 결국 “내 딸, 내 아들 걱정”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 5060 조부모가 황혼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

〈도표3-6〉 황혼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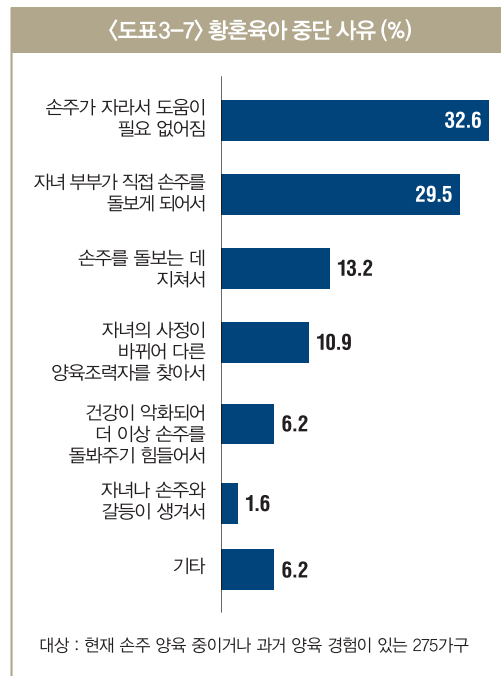
기 1위는 ‘자녀(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도와주려고’(48.0%)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통계와도 상통한다. 2위는 ‘자녀가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안쓰러워서(16.7%)’였다. 즉, 많은 5060 세대가 자녀 부부가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를 대신 맡거나,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5060의 자녀사랑은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한 자녀가 낳은 손자녀를 기르는 것까지, 하염없이 연장된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응답자는 손주 넷을 돌보느라 힘겹지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친손자는 100일 지나고부터 며느리가 일을 가서 그 후로 제가 보고 있고, 외손자도 옆 동네에 살아요. 외손자는 아들만 셋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육아를 혼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딸은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못 받은 것을 딸한테 해주고 싶어요”(권OO, 60세 여)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 없어”

황혼육아는 손주가 충분히 자라거나,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된

다. 황혼육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기 위해 과거 손주를 양육했지만 지금은 그만둔 129가구에 대해 황혼육아를 중단한 이유를 물었다. 1위가 손주가 자라서 더 이상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32.6%)로 나타났다. 2위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여 직접 자식을 돌보게 된 경우(29.5%)다. 조부모 본인이 지쳐 쉬이 필요하거나(13.2%) 건강이 악화된 경우(6.2%)는 일부에 그쳤다. 한 번 손주를 맡았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2015년 발간된 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중 73.8%가 ‘여건이 된다면 손주를 그만 돌보고 싶다’고 답했다.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이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황혼육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은 이와 거리가 멀다. 주 양육자 홀로 육아를 24시간 감당하게 되는 현실에 ‘독박육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5060 세대 역시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든 아니든 부모 둘이서만 손주를 키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의견에 78.8%가 동의했다. 결국 둘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자녀 부부가 조부모인 5060 세대에게 손을 내밀면, 조부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조부모 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도 황혼육아가 늘어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맞벌이가정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에 5060 대부분(88.2%)이 찬성했다. 2014년 이뤄진 황혼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전문육아도우미보다는 친가나 외가에서 자녀를 돌봐

● 해외의 황혼육아 지원 제도

유럽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가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조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도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하는 동안 부모가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보험 크레딧(NI credits)이 주어진다. 만약 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가까운 가족 혹은 친척이 대신 해당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조부모 크레딧’이다.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는 손주가 생긴 직원에게 1년간 조부모 육아 휴직을 준다. 호주 은행인 웨스트팩도 손주가 있는 직원이 최대 52주간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조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2005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손주 출생 휴가를 도입했다. 도호은행은 2015년 ‘이쿠마고휴가’ 제도(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유급휴가를 최대 120일까지 모아서 간병이나 가족 행사 등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은행 인사 담당자는 ‘조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아이를 낳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자료 참조 : 중앙일보 ‘황혼 육아 늘면서... 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2016.4.22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중 영국 및 일본 사례

주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라는 데도 10명 중 8명(80.1%)이 공감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 한 응답자는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토로했다.

“*(황혼육아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요새 보면 어린이집 구타 사건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 세대가 불안하게 생각해. 내 자식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더라고*”(류OO, 60세 남)

황혼육아는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 미비, 자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익숙한 5060 세대의 태도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KEY WORD

4

더블케어



5060 세대는 스스로도 낡은 세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누가 굳이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산다.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까지 좀 더 유예기간이 필요한 자녀들, 생애 말기로 접어들면서 심화된 돌봄과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노부모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두고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5060 세대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동시적 부양, 더블 케어 부담을 살펴보고 이 부담을 안고 있는 5060세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지 전망해 본다.

1 더블 케어 비용, 소득의 20%에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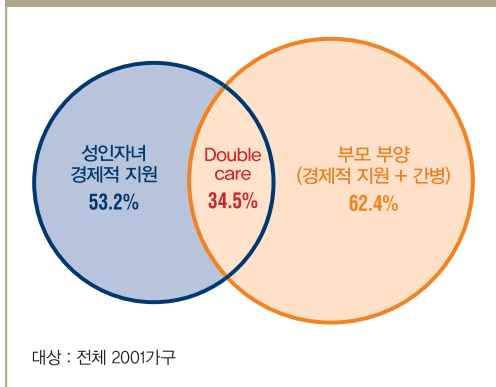
5060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5060 2가구 중 1가구(53.2%)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를 부양한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준다. 한편, 5060 가구 중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는 등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 세대 대부분은 자신들의 노후

더블 케어 (Double care)

: 생활비나 목돈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간병을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황

〈도표 4-1〉 5060 세대의 부양 부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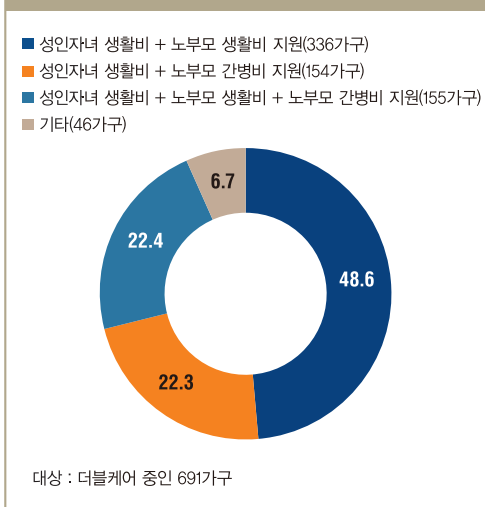


만 신경써도 부족할 시점인데 아직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양쪽에 대한 부양부담이 동시에 닥치는 경우다. 현재 아래로는 성인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 상태에 놓인 이들이 전체의 34.5%(691가구)에 이른다. 세 집 당 한 집 꼴이다.

5060 세대가 더블케어에 놓이는 데는 노부모보다 자녀 측 이유가 크다. 더블케어 중인 5060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해봤다. 더블케어 중인 5060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25세로, 더블케어를 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30세)에 비해 낮다. 또한 더블케어 중인 가구는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86.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 성인 자녀는 대부분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5060 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팍팍한 경제 환경 속에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만혼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5060 세대가 더블케어로 떠밀리는 형국이다.

더블케어에서 성인자녀 부양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더블케어 691가구 중 93.3%인 645가구가 성인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며, 목돈만 주는 경우는 6.7%다.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336가구, 전체의 48.6%), 노부모 간병을 하는 경우(154가구, 전체의 22.3%), 노부모에게 생활비도 주면서 간병도 하고 있는 경우(155가구, 22.4%)로 나뉘볼 수 있다.

〈도표 4-2〉 더블케어 가구의 부양 형태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 주는 경우 소득의 20%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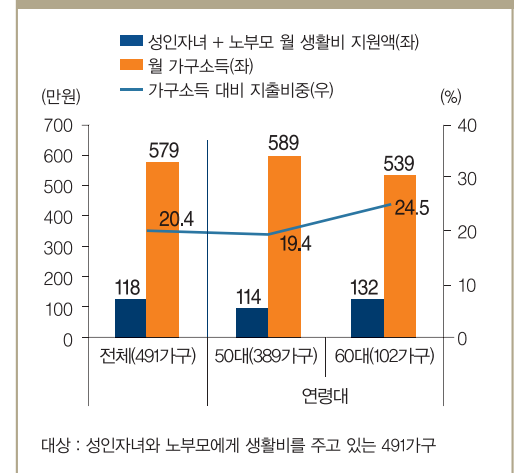
더블케어가 5060 가구의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는 491가구를 구분 했다. 이들이 매달 성인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원이며,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준다. 양 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70% 수준¹⁾임을 고려하면, 더블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의 상당부분을 더블케어에 쓰고 있다.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다.

50대보다 60대가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60대 가구가 50대보다 동거하는 성인자녀 수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 수가 적으면서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그런데 정작 60대의 소득은 50대보다 적다. 50대는 월소득의 19.4%, 60대는 월소득의 24.5%를 더블케어 생활비 지원에 쓴다.

퇴직 후 노후생활에 접어들면 점차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은 50대까지 증가하여 50대에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곡선을 그린다. 더블케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5060 가구의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도표 4-3〉 성인자녀 및 노부모 생활비 지원액 및 가구소득 대비 지출비중 (만원, %)



¹⁾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대비 소비지출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이다.

노부모 간병이 더해지면 더블케어 부담 가중

더블케어의 유형에 따라 매월 지출하는 비용에 차이가 나는지 구분해 봤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동일하되 노부모에게 생활비만 주는 경우, 노부모 간병비만 부담하는 경우, 노부모 생활비에 간병비까지 부담하는 세 가지 형태를 비교했다. 매월 소요되는 간병비는 각 가계가 부담한 간병비를 간병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했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만 주고 있는 경우 약 118만원을 지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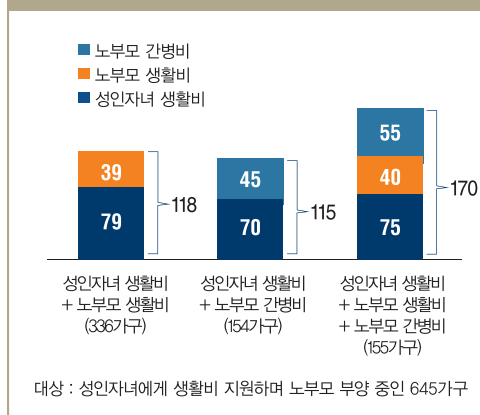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가구는 성인자녀 생활비로 70만원, 노부모 간병비로 45만원을 지원해 115만원을 썼다.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비 지원의 세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가구는 자녀에게 월 75만원의 생활비를,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로 월 55만원을 썼다. 합하면 월 170만원에 달한다. 세 가지 부양의 짐을 진 이들 155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562만원임을 생각하면, 월 소득의 30%가 정기적으로 더블케어에 쓰이는 셈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데, 여기에 간병비 부담이 추가된다면, 이 상황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의 5060 세대에게 은퇴시기에 닥친 더블케어는 경제적 부담감을 넘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생활비는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

도 고려해야 한다. 70대를 넘어서 노부모에게 병환이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를 일이며 병환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소요되는 간병비용과 간병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노부모 부양 중 장기 간병은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일단 지출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부모 간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보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표 4-4〉 더블케어 유형 별 지원액 (만원)



2 자칫하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져

손주 있는 더블케어 가구의 41.9%는 트리플 케어 중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막중한 짐인 더블케어. 그런데 더블케어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부양 부담이 지워질지 모른다. ‘황혼육아’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부양하며 손주 양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트리플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는 39가구다. 전체 더블케어 가구 중 5.6%에 해당한다.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가 있는 93가구 기준으로 보면, 손주가 있는 더블케어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41.9%)은 더블케어를 하면서 추가로 손주도 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허리가 휘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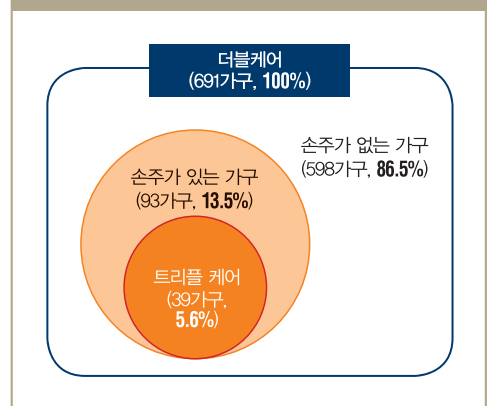
이들 트리플 케어 가구가 손주를 돌봐준 기간은 평균 26.5개월이다. 더블케어 가구 중 노부모를 간병한 경우 평균 간병기간이 22개월이었는데, 통상 노부모를 간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손주를 돌보는데 쓰임을 알 수 있다. 트리플 케어 중인 5060 10가구 중 3가구(28.2%)만이 손주를 돌보며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양육 수고비를 받고 있으며 매월 약 55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손주를 돌봐주면서 양육수고비를 받지 않는 경우(43.6%)가 받는 경우보다 더 많다. 손주를 돌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체력의 소진을 고려하면 고강도의 노동인데,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루 최대 24시간, 1~2년 이어지는 손주 양육의 노동을 금액으로 수치화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에 버금간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 고강도의 돌봄 노동까지 하고 있는 트리플 케어 가구는 그야말로 가족 부양의 멀티플레이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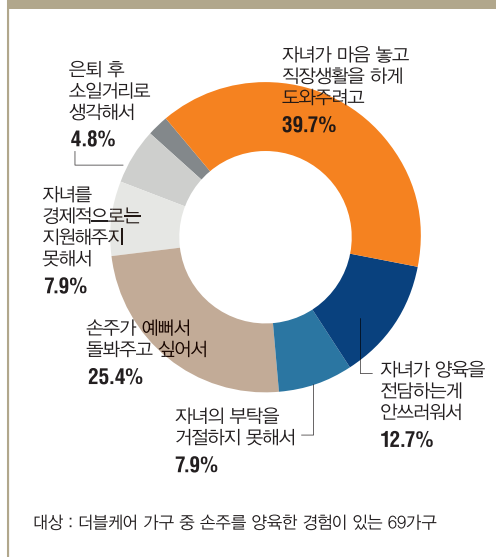
손주 생기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더블케어’ 가구가 손주 양육의 부담까지 동시에 안게 되어 ‘트리플 케어’로 변하는 것은 어찌면 시간 문제일지 모른다. 사회적으로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

〈도표 4-5〉 더블케어 가구 중 트리플 케어 가구 구성



〈도표4-6〉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양육경험자의 손주 양육 참여 이유 (%)



주요 이유는 맞벌이가구의 증가에 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0대 가구주 가계의 맞벌이 비중은 44.6%에 이른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외벌이로는 넉넉한 살림을 살기 어려운 팍팍한 경기가 계속된 탓이다. 젊은 세대가 맞벌이를 지속하려면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울 수밖에 없다. 가장 쉽고 믿을 만한 선택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조부모 등에게 육아 지원을 받는 비율

이 2004년 23.6%에서 2014년 53%까지 증가했다. 종합해보면, 30대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그들의 부모에게 손주양육을 맡긴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현실이 확인 되었다.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양육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손주를 양육해주었던 주된 이유를 물었다. 대부분이 자녀의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이유였다. 응답자중 가장 다수인 39.7%는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손주 양육에 참여했다고 하였다. 자녀 부부의 맞벌이가 황혼 육아의 주된 이유가 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지표다. 그 외에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워서’ (12.7%) 또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7.9%) 손주를 돌봐주었다는 응답이 눈에 띈다. 모두 자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주를 양육하게 된 경우다. 물론 ‘손주가 예뻐서 돌봐주고 싶은’ 자발적인 이유도 25.4%나 됐지만, 비자발적인 이유가 더 다수라 봐야 한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조사도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봐주는 데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24%)인 이유보다 비자발적 이유(76%)가 훨씬 더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해주는 것은 조부모보다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5060 가구가 현재 더블케어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더블케어 가구는 자칫 트리플 케어까지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3 ‘케어 푸어(Care Poor)’, 더블케어의 잠재적 위험

성인자녀와 노부모 생활비 주는 더블케어 가구 22%는 케어 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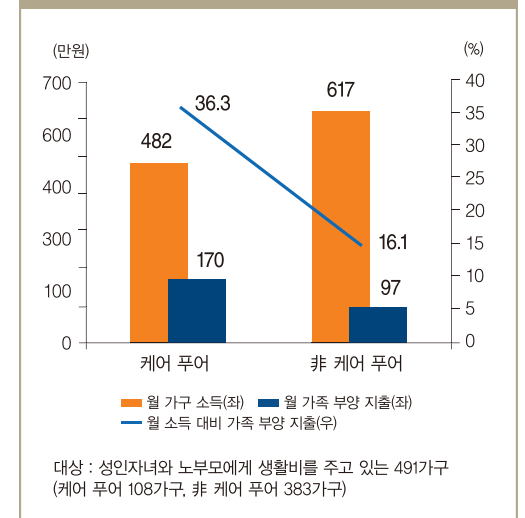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푸어(poor)’의 사회다. 하우스푸어, 카푸어 등 수많은 ‘푸어’가 난무한다. ‘푸어’는 특정 지출에 집중하거나 무분별하게 소비함으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5060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가족 부양을 위한 지출에 집중하거나 은퇴 생활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가족 부양과 관련된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노후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을 ‘케어 푸어’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푸어’ 가계를 지칭하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과 관련한 지출은 가족의 현재 상황이나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다고 ‘푸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가족 부양 지출이 가구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탐색적 차원에서 다소 상대적인 개념으로 ‘케어 푸어’를 정의해 보았다. 현재 월 소득 대비 가족 부양(성인자녀 및 노부모 생활비 지원) 지출 비율을 산출해 이 비율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케어 푸어’로 구분했다. 이들 가구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소득 대비 가족 부양 지출이 큰 편이라 현재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부분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고 있는 더블케어 가구(491가구) 중 케어 푸어 가구는 108가구로 전체의 22%다. 케어 푸어 가구의 월 소득 대비 가족 부양 지출(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비율은 평균 36.3%로, 케어 푸어가 아

〈도표 4-7〉 케어 푸어 여부에 따른 가구 소득 및 가족 부양 지출 (만원, %)



닌 가구(383가구) 평균인 16.1% 보다 약 20% 포인트 높다. 케어 푸어 가구는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대체로 월 가구 소득이 적은 반면, 가족 부양 지출은 월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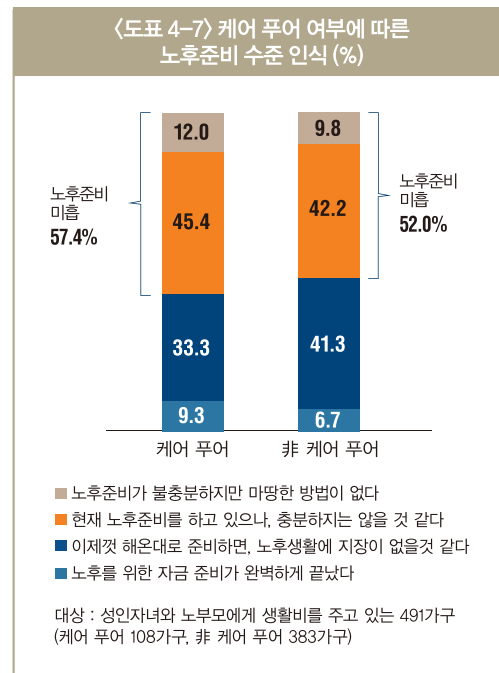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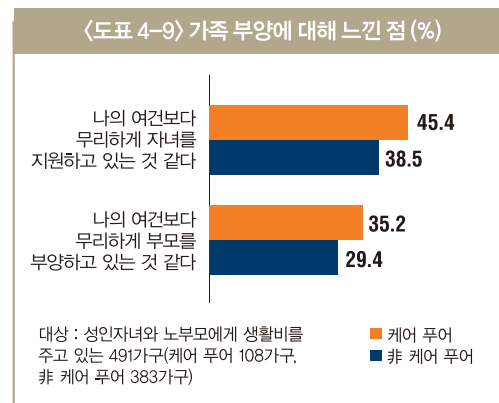
케어 푸어 가구, 가족 부양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느껴

케어 푸어 가구는 현재 자신들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정도가 자신들의 가능한 여건보다 과도한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어 푸어 가구의 45.4%가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35.2%는 여건보다 무리하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다. 노부모 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과도하다고 느끼는 편이며, 전반적으로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보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케어 푸어 가구 스스로가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수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은 다행이다. 향후 노후를 생각했을 때, 가족 부양 수준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케어 푸어 5가구 중 3가구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식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 중 많은 부분을 가족 부양에 지출하는 케어 푸어 가구 5가구 중 3가구(57.4%)는 스스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케어 푸어 상태가 아닌 가구(52%) 보다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소 높다.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지각에 있



어 케어 푸어 가구와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큰 것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지영 외(2009)나 정지영 외(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은퇴자금이 실제보다 더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케어 푸어 가구 중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7.4%이지만 실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들은 더 많을 수 있다.

케어 푸어 가구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케어 푸어 가구 일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여건보다 무리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과도한 가족 부양 지출이 케어 푸어 가구의 노후 준비를 저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해외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중노년층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메릴린치의 은퇴연구(2013)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절반 가량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은퇴 생활을 희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선택하는 희생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를 늦춰 더 오래 일함으로써 소득기간을 연장하는 방법(60%, 복수응답)이었다.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방법도 많이 고려되었다(40%). 은퇴 생활의 안락함을 다소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36%를 차지했다.

5060 가구 중 더블케어를 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케어 푸어는 62가구(108가구의 57.4%)로 전체 더블케어가구의 9% 수준이다. 수치만 봐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더블케어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가족을 부양한 것에 발목이 잡혀 초라한 노후준비를 마주하고 있는 숨은 케어 푸어 가구가 훨씬 많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노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제안일 수 있다. 당장 눈 앞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5060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필요하다면 자녀들이나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형제자매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다.

KEY WORD

5 동상이몽

최근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제목에 내건 TV 오락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남녀 커플이 일상에서 겪는 서로 간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다.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치르는 어느 부부의 일상을 보다 보면, 함께 살아온 세월이 사반세기가 되어도 좁혀지지 않는 남녀의 차이가 눈에 띈다. 5060 세대가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부양의 역할에서부터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간극이 있다. 또한 5060 부부의 동상이몽은 가장 마지막까지 노후를 함께 할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5060 부부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30여년을 함께 지내오면서도 좁히지 못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되짚어봤다.



1 부양과 가사의 주제, 5060 여성

노부모를 집에서 주로 간병하는 이는 여성

5060 세대의 가족 부양은 끝이 없다.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교육까지만 시켜주면 끝날 것 같았던 자녀 양육은, 자녀가 성인인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성인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자녀 결혼과 맞물린 목돈을 지원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 뿐 아니다. 더 부담스러운 노부모 부양도 있다. 노부모가 건

강할 때는 경제적 지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몸이 아파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의료비·간병비 등이 더 필요하고 직접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부양의 늪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5060 세대의 삶. 그런데 이들의 삶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 보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부양의 책임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여성에게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가사, 돌봄 노동 등 비경제적인 부담은 5060 여성의 몫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부모 간병이다. 노부모를 집에 모시고 간병할 때 주된 간병자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본 조사에서 노부모 간병시 주된 간병자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남성의 65.3%가 ‘배우자’라고 답했고, 여성의 71.7%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 열에 일곱(69.3%)은 5060 여성이 간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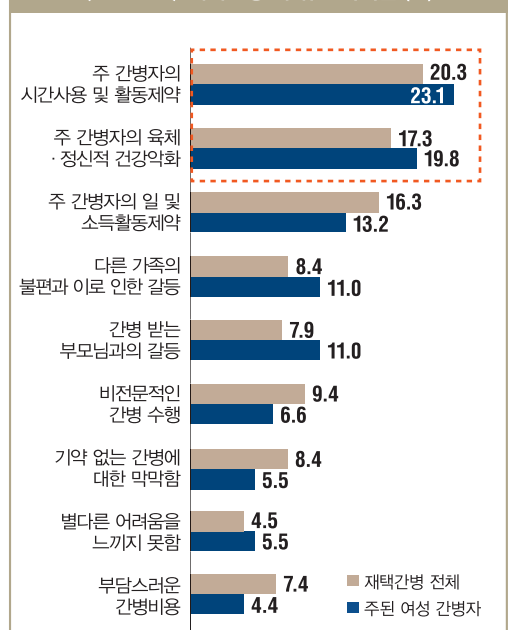
서울시 복지재단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일을 하며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서울 시민 200명 가운데 88.5%가 여성이다. 일을 통해 가계 수입을 충당하면서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조사에서도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할 때 주된 간병자인 5060여성이 느낀 애로

〈도표 5-1〉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한 경우 주 간병자 (%)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병환 중인 부모님의 배우자	6.7	7.9
응답자 본인	22.7	71.7
본인의 배우자	65.3	12.6
본인의 자녀	0.0	0.8
본인의 형제자매 등	1.3	3.9
가족 외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4.0	3.1

대상 :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한 202 가구

〈도표 5-2〉 재택간병 시 겪는 어려움 (%)



대상 : 본인의 집에서 부모님을 간병한 202가구 및 본인 집에서 주된 간병자였던 여성 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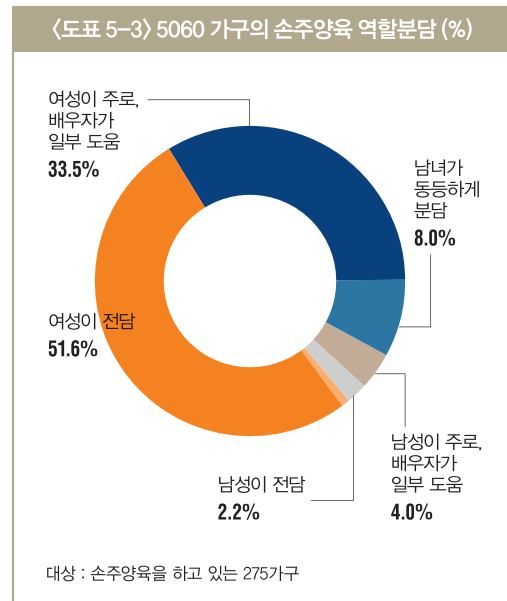
사항을 확인해 봤다. 직접간병을 하면서 와닿았던 어려움은 무엇이였을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시간사용과 활동 제약'이었고, 그 다음이 '주 간병자의 육체, 정신적 건강악화'였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재택간병을 했다고 응답한 5060 세대 전체와 주된 여성 간병자들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 직접 간병을 한 5060 여성들이 주간병자의 활동 제약과 육체·정신적 건강 악화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사실이다.

손주 양육의 주체 역시 할머니

최근 들어 더 많은 5060이 감당하게 된 부양 책임 중 하나가 바로 손주양육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가족 뒷바라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뿐. 손주가 태어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맞벌이라든가 해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녀 부부를 생각하면, 힘들게 취업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생각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 처지에 자식을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본 조사결과, 손주가 있는 5060 가구의 51.1%는 손주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손주를 양육할 때의 역할 분담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와 배우자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성의 37.8%가 배우자가 손주양육을 전담했다고 했고, 여성의 58.4%가 본인이 도맡았다고 했다. 이를 합해보면 5060

가구가 손주를 양육한 경우 절반 가량(51.6%)은 5060 여성이 손주양육을 전담했다. 나아가 여성이 주로 손주를 돌보고 배우자는 일부 도와주었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여성이 손주양육의 주체가 된 비율이 85.1%까지 이른다. 시간을 쪼개어 내고, 손목과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힘들여 손주를 직접 돌보는 역할은 할머니의 몫이다. 할아버지는 거들고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

이 뿐 아니다. 직접적인 부양 노동은 아니지만,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들도 5060 여성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은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청소, 식사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사 노동도 지원받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 중에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5060 가구의 가사노동 역시 여성의 몫이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가 이를 설명한다. 부인이 전적으로 양육과 가사분담을 맡는다는 응답이 21.8%였고,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돕는다(65.8%)는 응답을 포함하면 기혼가구의 87.6%, 10 가구 중 9 가구는 여성이 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고 있다. 기혼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활동을 맡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다. 5060 여성 셋 중 한 명 꼴로 전적으로 가사활동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5-4〉 기혼 가구(15~64세)의 부부간 양육과 가사활동 분담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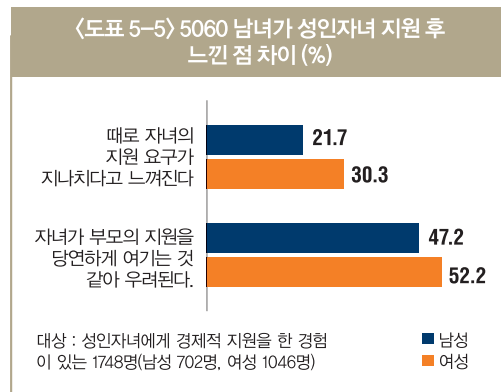
구분	전적으로 부인	주로 부인 남편 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 남편 부인 도움	전적으로 남편
전체	21.8	65.8	10.6	1.7	0.2
기혼여성	23.4	66.3	9.2	1.0	0.0
연령	15~29세	10.3	69.4	19.4	0.9
	30~39세	16.1	71.3	11.3	1.4
	40~49세	24.2	67.8	7.1	0.8
	50~59세	33.2	58.4	7.7	0.7
	60세 이상	34.5	57.6	4.2	3.7

주 :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가족 부양에 대한 남녀의 시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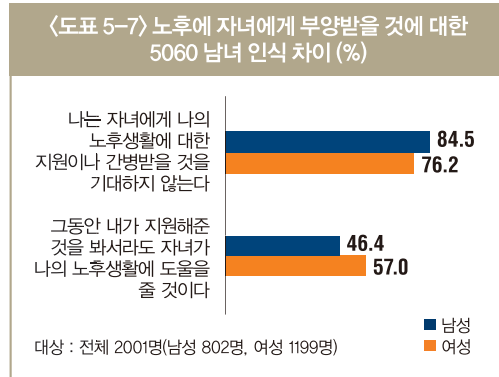
5060 남녀가 가족 부양에서 감당하는 실질적 역할이 다른 만큼, 가족을 부양하면서 느낀 점에도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노부모를 간병하며 느낀 점이나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기대도 많은 5060 여성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5060 세대에게 느낀 점을 물었다. 5060 남녀 모두 여력이 되는 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남 76.9%, 여 75.4%)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남 76.9%, 여 75.4%)이라고 생각했다. 5060 세대 다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 ‘때로 자녀의 지원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는 데 동의한 남성은 21.7%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30.3%가 동의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데 동의한 남성은 47.2%인데 여성의 동의율은 52.2%로 유의하게 높았다. 아무래도 5060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성인자녀들의 생활에 좀 더 밀착되어 있고, 특히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사활동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자녀의 요구나 반응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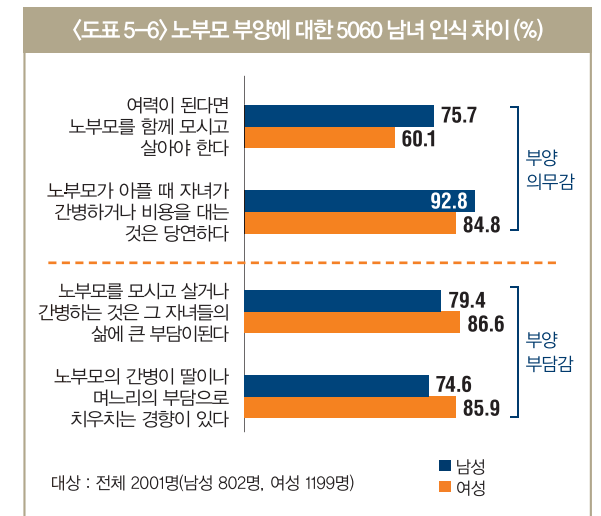
대체로 5060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을 조금 더 기대하거나 자녀의 보답을 낙관하는 눈치다. 전반적으로 5060 세대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부담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5060 세대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미묘한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자녀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을 기대하지 않는다’에 대한 남성의 동의율은 84.5%이나 여성의 경우 76.2%가 동의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그 동안 내가 지원해준 것을 봐서라도 자녀가 나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안 지원해준 것을 봐서라도 자녀가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여성의 동의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보답을 내심 기대하는 듯 보인다.

노부모 부양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극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75.7%이지만, 여성은 60.1%가 동의했다. ‘노부모가 아플 때 자녀가 간병하거나 비용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있어서는 남성의 동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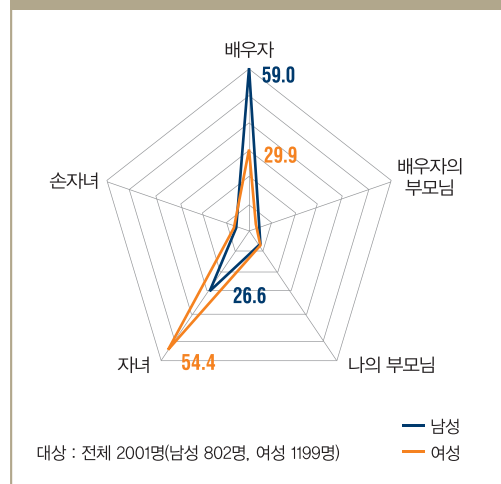
여 84.8%) 한편, 5060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크게 느낀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간병하는 것이 그 자녀의 삶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노부모 간병이 딸이나 며느리의 부담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남성들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성들이 노부모 부양, 간병에 있어 감당하는 역할이 더 많아 느끼는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5060 가구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속한 구성원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대체로 5060 여성들이 부양의 대상을 막론하고 비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막중한 부양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5060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며 부양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5060 부부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가족 부양의 짐을 져나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부양자로서 여성의 고달픈 입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부부 서로 간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와 생각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애정의 크기는 달라도 결국엔 ‘당신’ 밖에 없는 5060 부부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자녀가 가장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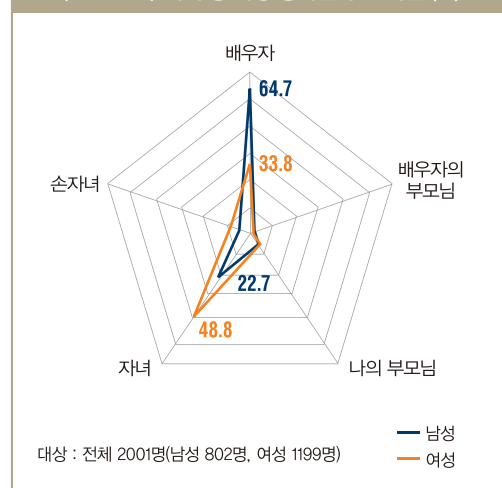
〈도표 5-8〉 가족 중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 (%)



5060 세대가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여다 보노라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동상이몽이 발견된다. 바로 부부간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가족 중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답에 큰 차이가 있었다. 5060 남성의 59%가 배우자를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 답했다. 자녀라고 답한 비율은 26.6%로 배우자로 답한 경우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 54.4%가 가장 애정이 있는 관계로 자녀와의 관계를 꼽았다. 배우자로 답한 비율은 29.9% 였다. 배우자를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꼽은 비율은 남녀 간 29.1% 포인트의 간극이 있다.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도 비슷하다. 가족 관계 중 남성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는 단연 배우자다. 남성 응답자 셋 중 둘(64.7%)은 배우자를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 답했지만, 여성 중 배우자에게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3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여성의 48.8%는 자녀에게서 가장 큰 행복을 얻고 있다. 남편은 오매불망 아내를 바라보지만, 사실 아내의 오매불망은 그들의 자녀이다.

〈도표 5-9〉 가족 중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 (%)



노후를 함께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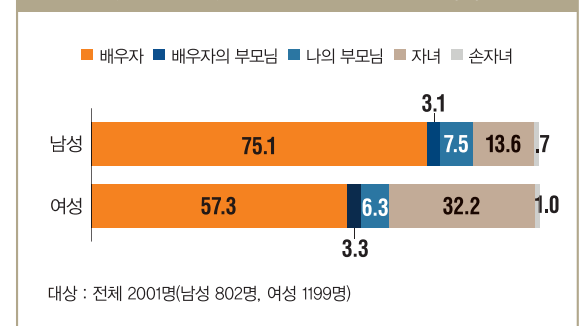
비록 5060 남성과 여성이 가족 중에서 가장 애정을 느끼고, 행복을 준다고 여기는 존재의 순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남녀 공히 가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죠. 제가 그것을 30년 살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반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나머지 반은 배우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황OO, 55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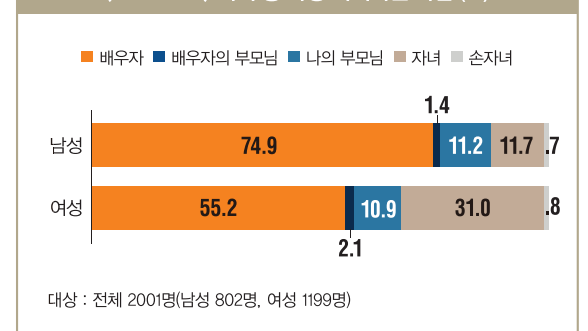
“**늙어가면서 남편이 친구같이 지내게 돼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몰랐는데, 요즘에는 하루 노는 날 있으면 같이 영화 구경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홍OO, 62세 여)

5060 여성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드러났다.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투기도 했던 서로이지만, 이제껏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또 함께 할 배우자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5060 세대에게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을 때 남성의 77.4%, 여성의 61.6%가 우리부부끼리만 살고 싶다고 답했다. ‘누구와 살게 될 것인지’가 아닌 ‘누구와 살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지금의 5060 세대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양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양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을 때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꾸려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표 5-10〉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 (%)



〈도표 5-11〉 가족 중 가장 의지하는 사람 (%)



맺으며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결과, 5060 세대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부모은행·원격부양·황혼육아·더블케어·동상이몽’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부모은행’ 키워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 지원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5060 세대 네 집 중 세 집(74.8%)이 성인자녀의 생활비, 용돈을 지원한 바 있다. 75.7%는 학자금,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5847만 원에 달한다.

‘원격부양’은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5060 세대 열 집 중 아홉 집(87.7%)은 부모님과 따로 산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4.6%가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챙겨드린다. 비정기으로 일정 금액을 드리는 경우도 28.4%다.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 간병하며, 형제자매가 나눠서 간병비를 부담한다.

‘황혼육아’는 자녀가 손주를 낳은 이후 추가되는 과업이다. 손주가 있는 5060 가운데 24%가 과거 황혼육아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 경험자들은 황혼육아가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적다. 양육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에 그친다.

‘더블케어’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5060 세대 중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53.2%,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62.4%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담하는 더블 케어 가구는 세 집 중 한 집(34.5%) 꼴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78만원, 부모에게 40만원 등 총 11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동상이몽’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야 할 5060 부부 사이의 갈등 요소다. 5060 여성은 노부모 부양(69.3%)이나 손주 양육(85.1%)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시선 차이도 있다. 남성은 배우자(59%)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지만, 여성은 배우자(29.9%)보다 자녀(54.4%)에게 많은 애정을 느낀다.

5060 세대에게 가족 부양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노후생활,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이다. 5060 세대는 100세 시대 노후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변모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저성장 경제에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가족을 지원하느라, 혹은 소득이 부족해서, 그때 그때 쓰기 바빠 막상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다는 후회도 하게 된다. 50대 응답자의 46%, 60대 응답자의 40.1%가 ‘충분한 노후 대비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것이 100세 시

대 노후를 앞둔 5060 세대의 현실이다.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성인자녀들이 지원을 바라고, 위에서는 노부모가 의지하는 이 무거운 책임의 고리를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 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결국 5060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사이에 자원 배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5060 세대가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두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를 지원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자녀를 지원하고 난 뒤 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자금을 먼저 준비해두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자녀 세대의 결혼 시기가 5060 세대의 은퇴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 퇴직금을 깨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었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당장 얼마의 지원금을 주기보다 길게는 몇 십 년으로 이어질 나이의 노후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일일지 모른다.

둘째, 노부모 부양은 가족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5060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달리 적어도 서너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를 함께 부양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이든 물리적 부양이든, 한 집에서 노부모 부양을 전부 책임지기보다 형제자매끼리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외부 간병서비스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적절한 대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부부간 가족 지원에 대한 합의와 소통에 좀 더 힘써야 한다. 부부라 하더라도 자녀 지원이나 부모에 관한 생각이 다르고, 부양에서의 역할도 다른 듯 보인다. 배우자는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를 함께 감당할 동반자다. 마음을 합해야만 이 과업들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 노후에 함께 밥을 차려 먹고 여행을 가고 답소를 나누며 아프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은 가족 중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곁의 배우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현, 신형석, 이정화(2017), 일하는 가족 돌봄자 지원방안 연구 (노인돌봄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 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 김수정, 민현주, 정수연(2010),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희정(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ISSUE PAP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10
- 이재림(2017), ‘부모는 영원한 봉인가?’ 20-30대 성인자녀의 도구적 의존 재조명’,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1)
- 정지영, 양세정(201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 Fry, R. (2016), For First Time in Modern Era, Living with Parents Edges out Other Living Arrangements for 18-to 34-Year-Olds: Share Living with Spouse or Partner Continues to Fall, Pew Research Center
- Lee, S., Colditz, G., Berkman, L., & Kawachi, I. (2003), Caregiving to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11)
- Merrill Lynch & Age Wave (2013), Family & Retirement: The Elephant in the Room. Bank of America Corporation
- 서울시(2013),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 e-서울통계 85호
-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 동향 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
- 통계청(2014), 사회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황혼육아 늘면서...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중앙일보 (2016.4.22)
- “Hong Kong’s Hottest Property Lender: The Bank of Mom and Dad”, The Wall Street Journal (2018.3.20)



연금과 투자,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팟캐스트 · 페이스북 · 뉴스레터

01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

'팟빵/podcast' 앱 접속 → '은퇴' 검색 →
'행복한 은퇴 발전소' 구독



02

Facebook '미래에셋은퇴연구소'

'Facebook' 웹 / 앱 접속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03

뉴스레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클릭 → 이메일주소 등록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